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숭배자에서 숭배 받을 가치가 있게 되고 있다. 숭배 받을 가치 있는 아버지가 너희를 그 자신처럼 숭배 받을 가치가 있게 만들려고 왔다.

질문: 너희 자녀들은 내면에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느냐?

대답: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유산을 온전히 다 차지할 때까지는 아버지를 놓칠 수 없다는 것과 바바를 기억하며 낡은 몸을 떠나 그와 함께 집에 돌아가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너희들은 가진다. 바바는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쉬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노래: 시바에게 경배를.

음 산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음 산티”라 한다. 너희 자녀들도 역시 “음 산티”라 한다. 내면에 들어 있는 영혼이 “음 산티”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혼들은 제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고 아버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그들이 비록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기는 하지만, 그가 이르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혹은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또 너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너희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다. 영혼들은 남성이며, 아들들이다. 아버지는 지고의 영혼이므로 영혼들끼리는 서로 형제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몸에 들어오면, 일부는 남성, 일부는 여성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너희 자녀들은 이 지식을 지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거기서는 너희가 영혼이며 낡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지식을 가진다. 너희들은 영혼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다닌다. 전에 너희는 영혼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배역을 연기해왔는지도 몰랐다. 심지어 지금도 자기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대강의 형태로만 자신을 알고, 또 커다란 링검 형태도 역시 기억한다. 극소수만이 “영혼인 나는 한 점 빛이고, 아버지도 역시 빛의 한 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 모든 이의 지각은 등수대로다. 일부 어떤 이들은 아주 잘 이해해서, 남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너희들은 “여러분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오직 그분만이 정화자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설명해줘야 한다. 그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가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그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다. 영혼이 점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제 안다. 작은 영혼 각각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84생의 배역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이것도 역시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이 지식이 아주 좋다고, 너희들은 신을 찾는 아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저 말로만, “이것은 아주 좋아요!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라 할 것이다. 일부는 심지어 너희가 자기들을 무신론자로 바꾸고 있다는 말까지 한다. 다른 누구도 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우리는 지금 숭배 받을 가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숭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신, 숭배 받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최고로 숭배 받을 가치가 있는 고귀한 아버지(피타 슈리)다. 고귀한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그에게 속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오직 그 만이 높은 중에서 최고로 숭배 받을 가치가 있다. 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숭배 받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 숭배자들은 남들을 반드시 숭배자로 만든다. 세상의 모든 이가 숭배자들이다. 우리는 이제 숭배 받을 가치 있는 분을 찾았고, 그는 우리를 그 자신과 대등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우리들이 숭배를 그만두게 했다. 그는 직접 우리를 데리고 돌아간다. 이것은 더러운 세상이다. 이것은 죽음의 나라다. 라반의 왕국이 시작될 때 신봉이 시작된다. 너희들은 숭배 받을 가치 있는 데서 숭배자로 변한다. 그러면 너희를 숭배자에서 숭배 받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와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숭배 받을 가치 있는 신인들이 되고 있다. 각 영혼은 몸을 통해서 배역을 연기한다. 너희를 숭배 받을 가치 있는 신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너희 영혼들을 순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에게 이 방법이 주어졌다, 즉 너희가 숭배자에서 숭배 받을 가치 있는 자들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모든 이에게 숭배 받기 때문이다. 반 사이클 동안 숭배자였던 자들이 그 다음 반 사이클 동안은 숭배 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이것도 역시 드라마의 일부다. 아무도 드라마의 처음, 중간, 끝을 모른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이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남들에게 그것을 설명한다. 설명해야 할 첫 번째이자 주된 것은, “너희 자신을 하나의 점인 영혼이라고 여겨라”라는 것이다. 영혼들의 아버지는 무체인 분이다. 그는 지식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가 여기에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는 세계의 처음, 중간, 끝에 대한 비밀들을 설명한다. 아버지는 단 한 번만 온다. 너희가 그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다. 그는 이 합류시대에 단 한 번만 온다. 그는 와서 낡고 불순한 세계를 정화한다. 드라마 계획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가 왔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매 사이클마다 이런 식으로 온다. 이것에는 단 1초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바바가 정말로 너희에게 참된 지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각자 마음

으로 받아들이는다. 그 다음 한 사이클 후에 아버지가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지금 알게 된 것을 너희들은 다음 사이클에도 다시 알게 될 것이다. 낡은 세계는 이제 파괴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가 황금시대에 가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게 되리라는 것도 역시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황금시대 천국의 주민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각으로 이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행복한 상태를 지속한다. 이것은 학생으로서의 너희들의 삶이 아니냐? 우리는 천국의 주민들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다. 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 너희들의 행복은 안정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멸망을 위한 재료들이 모두 준비될 때까지 이 공부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아버지가 설명한다. 반드시 불이 나리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그것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도 못 참고 서로 성질을 낸다! 어디에나 여러 가지 유형의 군대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전쟁을 촉발시키려고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만들어진다. 지난 사이클에 일어났던 것처럼 멸망이 일어나야 한다. 너희 자녀들은 그것을 볼 것이다. 전에도 역시 너희는 불똥 하나에서 어떻게 것처럼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그들은 모두 서로 대형 폭탄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 죽음이 앞에 오면 그때 그들은 폭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폭탄들은 지난 전쟁에서도 역시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일어나게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런 폭탄들이 수천 개 있다. 모든 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아버지가 지금 왔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모든 이가 소리쳐 부르고 있다. 오 평화자여, 오소서! 우리를 이 더러운 세계에서 순수한 세계로 데려가 주소서. 순수한 세계가 두 개, 즉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이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모든 영혼은 순수해져서 해방의 나라로 갈 것이다. 죽음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이 슬픔의 세계는 파괴될 것이다. 처음에는 너희가 불멸의 나라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너희는 죽음의 나라로 들어왔다. 불멸의 나라가 지금 다시 한 번 세워지고 있다. 그곳에는 불시의 죽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멸의 나라라고 불린다. 비록 이런 용어들이 경전에 언급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바바가 이제 왔다는 것과 죽음의 나라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너희들은 안다. 이것은 100% 확실하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영혼인 너희들은 요가의 힘으로 순수해져야 한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자녀들은 이 만큼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에게서 너희의 유산인 왕국을 차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기억하며 많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 스스로 점검해라.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며 머물 수 있는가? 나는 몇 명에게나 이렇게 하라고 상기시켜주는가? ‘만마나바브’는 만트라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기억이다. 육체의식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은 영혼이다. 그 몸은 너희의 수레다.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많이 일을 한다. 너희는 황금시대의 신인이 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일을 다시 한 번 경험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실제로 영혼을 의식한다. 영혼은, “나의 이 몸은 낡아졌다. 나는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취할 것이다,” 라 할 것이다. 그곳에는 슬픔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떠나지 않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복용한다. 너희 자녀들은 심지어 병에 걸려도 너희 몸에 싫증을 내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너희가 순수해지는 것은 시브 바바를 기억함으로써 뿐이다. 이것은 노력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주된 측면은 기억의 순례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곳을 떠나 우리가 거주할 곳인 영혼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평화의 거주지다. 오직 너희들만이 평화의 거주지와 행복의 거주지를 알고 기억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 지식이 없다. 한 사이클 전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했던 자들은 그것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주된 것은 기억의 순례다. 신봉의 길의 순례들은 이제 끝나고 있다. 심지어 신봉의 길도 끝날 것이다. 신봉의 길이 무엇이나? 오직 지식이 있을 때에만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신봉을 행함으로써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신봉의 결실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 천국의 왕국을 유산으로 준다는 것을 이제 너희 자녀들이 이해한다. 그는 너희 모두에게 천국의 유산을 주었다. 왕, 왕비, 백성들 모두가 천국의 주민이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5천 년 전에 내가 너희를 천국의 주민들로 만들었다. 나는 지금 다시 한 번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런 식으로 84생을 다시 취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의 지각에 간직해라! 잊지 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처음, 중간, 끝에 대한 지식이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84생을 취하는가? 우리는 지금 바바에게서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전에도 무수히 여러 번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받았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전에 너희가 했던 식으로 그것을 차지해라. 아버지는 계속해서 모든 이를 가르친다. 그는 계속 너희에게 주의를 주며, 신성한 미덕들을 훈습하라고 이른다. 초연한 관찰자로서 너희 자신을 체크하고 너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들 중 일부는 자기가 아주 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을 모든 이가 알게 될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전시회들 등을 준

비하고 있다,” 라고 너희는 생각한다. 가여운 사람들은 무지의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봉이 틀림없이 더 고결하다고 여긴다. 너희가 전에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졌었느냐? 아버지가 지식의 대양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되었다. 그는 너희에게 신봉의 결실을 주는 분이다. 신봉을 많이 행해온 자들은 결실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들은 고귀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늙은 어머니들 등에게도 설명될 수 있게 모든 것이 쉽게 만들어진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해라.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분은 시바 신이다. 지고의 영혼 시바에게 경배를, 이라고 일컬어진다. 그가 이르는데,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게 전부다! 그는 너희에게 아무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더 발전함에 따라 너희는 시브 바바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유산을 차지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시브 바바를 기억하면서 몸을 떠나는 자들은 그 산스카르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다. 요가를 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은 결실을 받을 것이다. 주된 것은 걷거나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하며 머무는 것이다. 너희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죄의 짐을 치워야 한다. 이것에 필요한 것은 오직 기억뿐이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다른 어려움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는 반 사이클 동안 너희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유산을 차지하는 쉬운 길을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온 것이다. 그저 아버지를 기억하기만 해라. 전에는 너희가 비록 그를 기억했어도 지식은 없었다. 아버지가 이제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지식을 주었다. 시바를 대단히 숭배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버지가 직접 지금 이때에 와서 그 자신을 소개하며 이르는데, 나를 기억해라! 이제는 너희가 그를 잘 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너희들은 밥다다에게 가고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이 “행운의 수레”를 취했다. “행운의 수레”는 매우 유명하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식을 말해주는 것은 이 수레를 통해서다. 이것 역시 드라마에서 연기되는 하나의 배역이다. 매 사이클마다 그는 이 행운의 수레에 들어온다. 이 사람이 추하며 아름다운 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오직 너희들만 이것을 이해할 뿐, 사람들은 그에게 “아르주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브라마가 어떻게 비슈누가 되고, 비슈누가 어떻게 브라마가 되는지 아버지가 정확하게 설명한다. 너희가 브라마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과 비슈누의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비슈누의 나라에서 브라마의 나라로 가는 데는 84생이 걸린다.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수히 여러 번 너희들에게 설명되어 왔다. 아버지가 지금 영혼들에게 이르는데, 그저 나만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또 행복도 경험해야 한다. 이 마지막 생에 순수해짐으로써 너희는 순수한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왜 순수해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한 아버지의 자녀인 브라마 쿠마르, 브라마 쿠마리들이다. 그래도 너희의 태도가 물리적으로 변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 점차적으로 마지막 막쯤에 너희는 각자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는 카르마티트 단계를 갖는 것이 누구에게든 불가능하다.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 너희는 그 몸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벗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 한 분에 대한 기억만 있어야 되며, 이것에 노력이 든다. 앓자.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초연한 관찰자로서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지 보아라. 너희는 움직이고 행위를 행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느냐?
2. 너희 몸에 절대로 싫증내지 마라. 그 몸 안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해야 한다. 천국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생에 완전히 철저하게 공부해라.

축 복: 배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목적지를 보여주는, 산 등대이며 발전소가 되어라.

배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그들의 목적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등대이며 발전소가 되어라. 이를 위해서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즉 1) 모든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식별해라. 유능한 의사는 각자의 맥박을 짚는 방법을 아는 자라고 일컬어지듯이, 너희도 식별하는 힘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보물들에 대한 경험을 한결같이 간직해라. 그저 지식을 들려줄 뿐 아니라, 모든 관계와 모든 힘에 대한 경험도 주는 것을 너희 목표로 삼아라.

슬로건: 남들에게 교정(코렉션)을 보여주기보다 아버지와의 연결(코넥션)을 좋게 유지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